

1990 6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제 3 회 부부교양대학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스가라서

스가라는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처럼 구약성경 가운데 난해한 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환상들이 나타나 있다.

스가라의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함,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갑작스럽고도 단호한 중재의 약속을 때로는 간결한 회화체 산문으로, 어떤 때는 시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예언의 연대는 학개와 동일하게 다리오왕 2년, 주전 520년이었다.

내용은

1. 메시아와 천년왕국의 환상(1-6장)
2. 금식문제(7-8장)
3. 왕국의 종말 예고(9-14장)

6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2. 김창인 원로 목사님의 해외 사역
3. 부교역자, 협동 목사님, 선교사님들.
4. 장로님과 권사님, 제직들.
5. 제3차 홍해작전의 성공
6. 전교인 전도열 고취
7. 교회학교 부흥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1 : 3)

심판의 대상 스가랴서는 다리오왕 2년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으로 바로 전 권인 학개와 두 달을 사이로 두고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물인지 찾기가 힘드나 분명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2절). 또 스가랴가 열조의 죄를 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열조의 죄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아니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는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포도넝쿨 양 끝이 불탄 것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과 말씀까지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의 전례를 따라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 *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든지 둘 중의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외쳐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우리 조상의 위상송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종윤 위임목사님을 장중에 부르시사 능력으로 사용하옵소서

2 (토) 첫번째 환상

찬송340 성경, 습1 : 7-17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1 : 8)

임재하신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아홉 가지의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기도 어려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아홉 가지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모두 밤에 나타났습니다. 밤이란 혼란의 시간, 어두움이 깔려 있어서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그 시대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움이 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고 안연할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곤고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시급했던지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화석류나무란 상록수의 한 종류로 이것은 어느 주석을 보아도 이스라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죄로 가득 차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화석류나무 사이에 홍마 탄 사자들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 하면 안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깨달으면 즉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시급함을 느끼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선교여행에 동행하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1: 18)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뿔은 힘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본문의 네 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늘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이 보입니다. 네 명의 공장이 보였습니다. 공장이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목수나 대장쟁이라고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공장, 즉 네 사람의 일꾼은 이전의 네 뿔을 들어 꺾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정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둘러싼, 성도를 둘러싼, 진리를 둘러싼 모든 대적자들을 산산조각 나게 하셔서 보호하신 다음에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문의 두번째 환상은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신앙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원수들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 공장을 보내어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나라에 점점 질서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부요하게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복음이 지나가기 전 기회 주셨을 때에 바로 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과 협동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4 (월) 세번째 환상

찬송347 성경, 속2 : 1-13

「한 사람이 척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예루살렘을 척량하여…」(2:1)

하나님의 경계선 척량줄을 잡은 사람이란 그 해석이 난해합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척량줄을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의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경계선을 정해 놓으시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미리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찌다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척량줄로 재어 정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루살렘만으로는 안되고 하나님 자신이 사면으로 불성곽이 되셔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울무에서 건져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 됩니다. 바벨론성 즉 악마에 속한 성도가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불성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시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루살렘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 성도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시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3 : 3)

사죄의 옷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값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네번째 환상입니다. 대표자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약속을 받고 메시아의 도래가 약속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스가랴선지자는 네번째 환상에서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메시아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지만 학개서와(2 : 6-7) 말라기서 (3 : 1) 마가복음(1 : 2)을 참고하여 보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와 사자, 여호수아에게 새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침범합니다. 따치 회개하는 영처럼, 겸손의 허리띠를 두른 것같이 들어와서 성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성도의 죄가 더러워도 하나님이 옷을 갈아 입히고 용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를 고발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랑과 긍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6 (수) ② 네번째 환상

찬송507 성경, 속3 : 6-10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3 : 9)

진정한 신앙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옷을 입히어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내 의로 구원 받은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에게 헌신하게 됩니다(7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성도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소경과 같아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제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8절).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돌'은 여러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나라를 세우기 위한 돌을 말합니다.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눈이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줄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십니다. 참 종교는 성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고 동시에 번영이 있습니다.

******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판단으로 되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고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같은 것이 있고
…」(4 : 2)

지도자에 대한 계시 교회가 사명을 다하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스가랴가 본 다섯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였는데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왕직을 대표하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시대의 지도자로 기둥처럼 서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역량 이상이 될 수 없고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을 교인들에게 부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자기 혼자 기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기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6절)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 봐도 사람의 힘이나 능력 갖고는 안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합니다. 7절의 큰 산은 사람의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도 예수님이 오시면 콧대가 납작하게 됩니다. 은총이 없이는 겸손해질 수가 없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섯번째 환상을 통하여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을 쓰러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큰 종들이 자꾸 시험을 당하므로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도는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여야 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5 : 1)

하나님의 심판 스가랴 선지자가 여섯번째로 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란 양피지 위에 글씨를 써서 감은 구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현관 길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현관은 율법이 낭독되는 곳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두루 행하며 온 지면에 쏟아지면 그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목표지는 거짓 맹세 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며 온통 혼자 예수 믿는 것같이 거짓 맹세를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죄는 도적질입니다. 도적이란 반드시 물질을 훔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시간을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를 하시는 데 나무를 사르고 돌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고는 15년 동안이나 짓지 않았습니까. 거짓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집치레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적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찾아 가면서 주님을 섭섭지 않으시게 하며 헛맹세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5 : 7상)

심판의 신속성 에바란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담아 분량을 재는 그릇 즉 우리의 되나 말과 같은 그릇입니다. 스가랴가 일곱번째 본 환상은 에바 속에 한 여인이 깊숙히 앉아있고 그 위에 납덩이가 들려져 그 그릇이 곧 닫혀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심판이 가까운 때로 말합니다. 즉 에바의 속이 가득 담겨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납덩이가 뚜껑을 덮어버리는 순간 날라가서 정한 곳에 영원히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측정기를 달아 놓고 죄를 담아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죄가 에바에 가득히 채워지는 날을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납덩이는 심판을 의미하고 에바 속의 여인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죄인 위에 떨어지는 이 심판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바 속에만 집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 영원한 처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줄자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혹은 저울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상태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 * 성도가 해야할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삶과 행위를 정비해야 됩니다.

10 (일) 여덟번째 환상

찬송507 성경, 측6 : 1-8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낯산이더라」(6 : 1)

심판의 보편성 병거 넷이 각각 색깔이 다른 네 마리의 말과 함께 낯산사이에서 나오는 장면이 스가랴가 본 여덟번째 환상입니다. 병거가 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향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들의 색깔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 죽음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슬픔의 상징이며 흰색은 승리의 상징이고 어룡진 말은 혼합된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병거들이 두루 흩어지는데 북쪽으로는 흑마와 백마가 갑니다. 북쪽땅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땅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의 죄가 어느 지역보다도 흑심하므로 두 병거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땅으로는 애굽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룡진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건장한 말이 두루 다니는데 건장한 말이란 붉은 말로 해석이 되며 동서남북 닥치는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가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따라서 갚는데 이 죄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 버린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범위가 동서남북 두루입니다.

* * 우리는 하루 속히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욕심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봐도 그것은 자기 기분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 됩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6 : 11)

대관식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대표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아홉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이 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에서 왕직과 대제사장직의 두 가지 직분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며 선지자도 되신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아홉 가지 환상의 공통된 내용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스가랴서뿐만이 아니고 구약성경의 모든 것이 메시아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대표자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건장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것은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레스왕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 * 우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에게 포로되었다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 오늘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지 마을과 총현 선교원 하루속히 건립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12 (화) 아홉번째 환상②

찬송85 성경, 속6 : 12-15

「보라 순이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9 : 12)

메시아 본문의 순이란 땅에서부터 돌아나는 순을 말하며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속 3:8, 렘 23:5, 33:15) 그런데 순이 자기 곳, 즉 땅에서 돌아나면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천대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른 땅에서 돌아나는 순처럼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천박한 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돈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직과 왕직의 연합을 말하며 예수님께로부터 평화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왕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므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평화가 올 수 없고 죄는 곧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또한 홀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홀로 다니면 늘 불안하니까 왕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먼 데 사람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먼 데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초대 교회는 본래 노예들이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극히 작은 시작이 세계를 불태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보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미천함이 어떠했던지 현재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중요합니다.**

기도 미천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현의 찬양대원들이 영감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7:5하)

금식의 참 뜻 유대인들은 본문에서 금식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모세를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더 많은 금식일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금식이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 지도자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본래의 정신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얽매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온 때에도 그때를 기억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스가랴에게 질문하고 본문은 거기에 답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정한바 있습니다. 스가랴선지자는 5절에 아주 가슴 아픈 선언을 합니다. 70년 동안 애통하여 한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것입니다.

* *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나 예배를 자신이나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줄 알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7 : 9하)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동안 한 일은 이기심과 인본주의에 가득차서 희생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희생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과부의 엽전 두 닢을 원하십니다. 금식이란 본래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의 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에서 파괴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들을 적국 중에 돌풍과도 같이 흩어 버리시며 아름다운 땅을 황무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일들을 거울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사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순종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8 : 3)

진리와 거룩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와 거룩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두가지가 절대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진리와 거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본문의 4, 5절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양보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진리와 거룩이 상실되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내실때 홍해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내시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 *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됩니다. 성실과 공의와 진리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16 (토) 슬픔이 변하여

찬송348 성경, 측8 : 14-23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8 : 15)

성도의 할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에 개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잘못해도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조상이 잘해도 내가 상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손 만대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가 3-4대까지 이르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단일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값으로 징벌을 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조건이 16절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위증, 사기, 불의 이런 것들을 싫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편견을 버리고 공평을 가질때에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망해서 금식일을 선포했었으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금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 *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과거의 슬픈 추억은 오히려 현재의 기쁨을 더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난 날들로 인하여 기쁨이 더욱 큰 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와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9 : 1상)

마지막 날 경고라는 말은 예언이 아주 위협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드락이란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은 어려운 지명인데 이것은 수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드락 땅에 임한 경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수리아 지역을 점령하기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다메섹에 머물다고 하는 것은 다메섹이 심판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며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심판이 다메섹 뿐만 아니라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게는 넓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교활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치와 교만에 물들어 있는 이 두 도시에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 * 우리는 6·25사변을 우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매를 맞은 경고장입니다. 또한 몇번씩이나 일어난 혁명도 전부 하나님의 경고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입에서 피를 그 잇사이에서 그가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9 : 7)

하나님의 약속 두로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로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섬을 하나 발견해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습니다. 보장을 건축한 것입니다. 교만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에스겔은 두로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실지로 알렉산더대왕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취까지도 없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5·6절에는 알렉산더대왕이 군대를 끌고 행군하며 정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의 예언은 알렉산더대왕 때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렉산더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으로서 세계 정복의 꿈을 갖고 국토를 확장하며 성지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 왔던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피를 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상숭배의 의식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남은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6장17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 *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대왕은 예루살렘에 쳐들어 갔을 때 한밤에 꿈을 꾸고 예루살렘은 첩탁하되 성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제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막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9 : 9)

항상 기뻐하라 본문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는 450회 이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지만 본문과 같이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직접적인 예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백성들은 즐거워 합니다. 성도는 받을 복을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한 일을 즐거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은 왕적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상 받지 못할 선이 없고 또한 징벌 받지 않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한 선에 대하여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오시는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전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나귀란 천대받는 사람들이 타는 값싼 것입니다. 본문의 겸손은 또 온유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마음 깊이 생각하는바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바 선을 자꾸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지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20 (수) 신앙 운동

찬송36 성경, 속9 : 11-16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9 : 16)

마카비운동 스가라서 9장은 알렉산더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기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 신에게 제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전167년 12월25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통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단 11:31, 12:11)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신앙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잘알려진 마카비운동으로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해 내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온의 적들에게 활을 당기는 전사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네 자식은 시온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며 헬라 자식은 안티오쿠스의 그리스 사람들로 헬라문화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수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 * 마카비 운동이란 비록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일이었지만 복음에 충성한 이 작은 운동이 유대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9 : 17)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고통 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탈되고 성전이 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15절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복이 암시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가 나옵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와 사자는 더이상 전쟁을 하는 전사와 사자가 아닌 목자와 양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의 보석같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절기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는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닫혀지고 억울하고 원통하던 유대 민족들의 환희의 찬송 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 * 아름다운 것은 조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화있는 인격을 가지고 질서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백성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10 : 2)

목자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 중에 특별히 본문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목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며 또한 성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없는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고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떼들의 모습과도 같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곤고를 당하며 국토와 주권을 빼앗겨 억압받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터인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으므로 무언가를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목자를 멀리 떠나므로 거짓 목자를 쫓게 된 것입니다. 거짓 목자란 여러 가지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육신적으로는 악한 왕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참 지도자는 목자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 메시아는 모퉁이 돌로, 전쟁터의 활로, 말뚝으로 나타나는데 말뚝이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급해 주시는 힘을 뜻합니다.

* * 모퉁이 돌의 제일 중요한 일은 기둥을 받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에 근거될 때에 교회의 기둥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집의 기둥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찌라」(10 : 6)

회복의 기쁨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구히 불러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안에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악마에게 끌려 다니면서 죽도록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회복은 더디지만 그러나 아픔이 클수록 회복의 기쁨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주시어 불러모으실 때에는 매맞은 흔적까지도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휘파람을 불어서 모의신다고 했습니다(8절) 이것은 꿀벌들이 양봉가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벌통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꿀단지(8절)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던 일을 회상케 하며 앞으로의 일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며 거침돌을 물리쳐 주십니다.

* *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종일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4 (주일) 다가올 폭풍

찬송338 성경, 속11:1-3

「목자는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훼손되었음으로 다」(11:3상)

하나님의 뜻 항해를 하는 길이 반드시 잔잔하리라고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힘입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자기들에게 폭풍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폭풍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폭풍을 예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북으로 주신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먹고 살찌우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배신을 하거나 멀리 떠나게 되면 반드시 풍랑을 일으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 줄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택동 군대가 전중국을 휩쓸 즈음 중국의 기독교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로는 중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공산당으로 하여금 매를 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 *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이나 어려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의 사역 본문도 전절과 같이 메시아 예언임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4절로 6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4절의 잡힐 양떼란 어리석게도 목자의 보호를 배척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을 운명에 처한 양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예언은 그후 디도 장군을 중심으로한 로마 군인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 거민이 잡혀 가고 죽임을 당하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목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의 산 자와 판 자란 유대인을 마치 물건과 같이 사고 파는 로마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을 산 사람은 죄없다 하고 판 사람은 돈으로 부요케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5절의 목자들이란 유대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교인들로 그들은 지도자라고 떠들고 다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자기배 부르다고 상관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참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그리스도 뿐입니다.

* *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것도 죄이려니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자리를 주신 것은 백성을 돌보게 하심입니다.

26 (화) 은총과 열락의 막대기

찬송190 성경, 속11 : 7-14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라」(11 : 7)

영령의 수행 가련한 양떼란 모든 양들이 돌보는 사람이 없이 잡히움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말합니다. 또한 이 가련한 양 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련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손에는 은총과 열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은총이란 사랑이요 열락이란 백성들이 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사랑의 막대기로 악마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열락의 막대기로 흩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8절에 한달 동안에 꿇긴 세 목자란 개인적으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부류의 사람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란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도자들을 처리하시되 죽으면 죽는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파멸입니다. 12절로 13절을 저절당하는 메시아의 모습, 은 삼십에 팔려가는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은 삼십이란 종의 몸값을 말하므로(출21:31) 예수님을 종과 같이 천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중 가장 안타까운 저주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결국 갈곳은 멸망의 함정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힘써시다.

「너는 또 우매한 목자들의 기구를 취할찌니라」(11 : 15)

사탄의 역사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도처에서 악한 거짓 목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진리만이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진리가 있는 반면 악은 그보다 더 크게 성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일수록 사탄이 더욱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수록 사탄은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의 한 목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목자란 도움이 요청되는 자들, 없어진 자, 흩어진 자 상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악한 목자는 그들에게 무관심합니다. 태만한 자입니다. 이것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짓 목자는 양들을 천대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더우기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습니다. 강건한 자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 목자는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영양을 공급시켜 주어 그들로 기도의 능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되는데 거짓 목자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는 다만 자기의 배만 채울 뿐입니다.

* *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 하며 자기의 구원에만 연연하고 이웃이나 구역을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 목자가 됩니다.

28 (목) 거짓 목자

찬송421 성경, 속11 : 15-17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11 : 17)

못다한 책임 거짓 목자의 특징은 책임의 회피와 욕심과 잔인성입니다. 본문을 보면 거짓 목자는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굵까지 찢어 먹습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리고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그나마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생기면 잔인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므로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다가 결국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이방 사람들 앞에 빛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 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욕심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자기의 소욕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흠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바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 *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어렵고 곤고한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복음이 확산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 가정에 찬송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나태한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 욕심과 잔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흠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12:8)

하나님의 은총 스가랴서를 보면 12장 이후로 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시고 그 날에 오실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들기 전에 먼저 말씀의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 이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생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같은 말씀인데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하신 것은 경륜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 교회를 향해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어 돌아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백성들 앞에 무거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4절).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계층에 임하며 모든 교회에 임합니다.

* * * 몸에 병들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함은 믿음이 없는 연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30 (토) 예루살렘에 임할 복

찬송454 성경, 속12 : 10-14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12 : 10)

간구하는 심령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전쟁이 도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어 강하게 하십니다(8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멸하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9절). 스가랴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음에는 흔들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상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기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뜻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십니다. 10절에는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회개하는 영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평화를 얻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본문 10절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리가 생겨질 때에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힘입고 간구하는 심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날이 오기 전에 마음 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며 개인적 회개 뿐 아니라 민족적인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과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